오늘의 게시판

제 18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개회식 오전 10시 목포문예회관

행사

〈25일〉

▲2006 추계 석전대제=오전 10시 광주·진도·담양·창평·무안·순천·낙안·화순 향교 등.

▲제 18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개회식=오전 10시 목포문예회관.

▲호남연구단 진도문화 발표회=오후 2시 진도군청 민방위교육장. 진도문화의 특성·진도사람들의 주검처리 발식과 왜덕산 등에 대해 발표.

〈26일〉

▲제 93차 광주경제포럼 조찬 세미나=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 1층. 이정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씨가 '최근 노사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에 관해 강연.

▲광주·전남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장춘상) 광주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오전 11시 센트럴관광호텔. 단체수의계약 폐지 등에 관한 현안 논의

▲제 4회 순천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오전 10시30분 순천 팔마체육관.

▲제 2회 호남권 RHRD 공동심포지엄=오후 2시 광주시청 중회의실.

▲당뇨기능성쌀 개발연구용역 보고회=오후 2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공연

▲담양 예술인 한마당=오후 6시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시낭송·설장구·판소리·마당극 심청전 등 공연.

▲모던앙상블 정기연주회=25일(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11회 정기공연=25~29일 오후 7시30분 드맹 아트홀.

▲불우 청소년 돕기 공연=25일(월) 오후 7시 (재)5·18기념재단 민주홀.

▲우크라이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공연=26일(화) 오후 7시30분 (재)5·18기념재단 민주홀.

▲광주시립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 연주회'=26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여성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26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전시

▲5·18관련 그림 및 사진전=30일까지 (재)5·18기념재단.

▲김영순 특별전=31일까지 동림우체국.

▲여림회전=27일까지 상계갤러리.

광주일보가 실시한 29·30회 뉴스 퀴즈 추첨 결과, 배경순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배씨는 24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29·30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09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김현갑 경사와 박은미 경장, 박세나 순경, 조혜영 순경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배경순·광주시 서구 치평동

2등 ▲정병옥·광주시 북구 우산동

뉴스퀴즈

31.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을 순회하면서 쏟아낸 발언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원장 자진 사퇴' 요구까지 촉발하며 법조계 안팎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판 중심주의 및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 논란이 일면서 '법조 3륜'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강조하며 지난해 9월 취임한 제 14대 대법원장은 누구일까요.

① 이용훈 ② 정상명 ③ 윤광웅 ④ 천정배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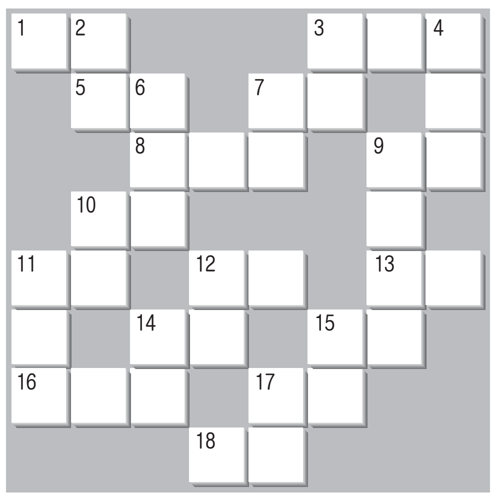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지난주 정답자〉

29회 - ① 광주비엔날레, 30회 - ① 설기현

함께 풀어봅시다 < 220 >



→ 가로풀이

1.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관계 기관에 냄. 등록금 ~ 고지서. 3.고려시대에 왕명의 출납(出納) 군기(軍機) 숙위(宿衛)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성종 10년(991)에 설치한 것으로 뒤에 추밀원, 밀직사 등으로 여러 차례 고쳤다. 또는 조선 전기에 왕명의 출납, 군정(軍政), 숙위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5.자궁의 양막 속을 채우는 액체.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 때는 태아와 함께 흘러나와 분만을 쉽게 한다. 7.음식의 종류에 따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미. 그는 ~이 좋아서 아무 음식이나 잘 먹는다. 8.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인 종이. 주로 어린이들의 공작용으로 접기나 오려 붙이기 등에 쓴다. 9.평지보다 아주 높은 땅. 또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높은 곳의 진지. 적의 ~를 탈환하다. 10.사람이 누워 잘 수 있도록 만든 가구. 길쭉한 평상에 다리가 달려 있다. 11.내피 안에서 모근(毛根)을 싸고 털의 영양을 맡아보는 주머니. 12.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 ~제다. 13.믿지 아니함. 또는 믿을 수 없음. 14.소나 돼지의 등뼈에 붙은 기름기가 많고 연한 고기. 15.지체나 신분에 알맞은 체면. 양반으로서 ~을 지켜야 한다. 16.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등급. 그녀의 바이올린 솜씨는 ~이다. 17.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情).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를 풀었다. 18.같은 일을 되풀이함.

↓ 세로풀이

2.가라앉은 것이 떠오름. 또는 떠오르게 함. 정부는 경기 ~ 대책을 내놓았다. 3.산성도 염기성도 나타나지 않는 성질. 4.글을 쓸 때 쓰는 일정한 규격의 용지. 한 칸에 한 자씩 쓰도록 되어 있다. 6.적의 위치,병력,화력 등을 알아내거나 고립된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 적진 등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부대. 7.동물이 살아가기 위해 먹어야 할 거리. 또는 사육하는 가축에게 주는 먹을거리. 9.조금도 융통성 없이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일. 또는 그런 사람. 10.겹으로 된 천 사이에 솜, 깃털 등을 넣고 자루 모양으로 만든 침구. 주로 야영할 때에 쓴다. 11.교도소 안에서 규칙을 잘 지켜 다른 죄수의 본보기가 되는 죄수. 12.확고한 주관이나 줏대. 또는 원둘레나 구 위의 모든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을 잡다. 14.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 등의 차이를 여러 층으로 구분한 단계. 신체 ~ 판정. 15.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쫓아가서 잡음. 17.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피로 ~.

조	정		주	간	지		영
	찰		도		푸	대	접
	제	도	권		라		
		박			기	현	상
	어	장					대
	깨			신		오	역
시	동		야	사		징	
	무	가	당		국	어	

〈함께 풀어봅시다 219회 정답〉

▲지난주당첨자

안선민·나주시 성북동

하은아·광주시 남구 백운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5일(음 8월 4일 丁巳)

子 36년생 새로운 투자는 내일로 미루고 현금을 점검하라. 48년생 자신만만 하지마라 복병이 있다. 60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나 매사에 조심하라. 72년생 제사가 불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84년생 애인과 사랑싸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1, 37

丑 37년생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하니 서로서로 이해하라. 49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진행은 지연된다. 61년생 길한 일과 흉한 일이 동시에 있다. 73년생 직장과 아내사이에 불편사가 발생한다. 85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 08, 34

寅 38년생 직업과 재물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50년생 흉과 복이 다반사니 심신을 다스려라. 62년생 대고는 없으나 편치도 않다. 74년생 아내와 불화를 대화로 노력하면 애정으로 변하리라. 행운의 숫자 : 11, 40

卯 39년생 주변의 간섭이 자신의 길을 어지럽히니 중중하게 처신하라. 51년생 규모를 축소하고 내실을 기하라. 63년생 자신의 발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좋은 길이 보인다. 75년생 좋은 매너에 좋은 처녀가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07, 26

辰 40년생 사소한 일로 관청에 가는 수도 보이니 자중이 최선이다. 52년생 언쟁보다는 화해가 최선이다. 64년생 남이 시비를 걸어온다. 76년생 급하면 그르치니 천천히 진행하면 잘못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05, 38

巳 41년생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고 이웃에게 베풀어라. 53년생 꾸준한 노력의 대가가 보이려는 시기다. 65년생 걱정의 99%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77년생 심상의 안정이 모든 일의 실마리를 쥐고 있으니 수양하는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 14, 29

午 42년생 희망의 노래 소리가 들려오니 준비하고 있으라. 54년생 문서는 쥐었으나 실리는 없다. 66년생 큰 계획으로 임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78년생 제사가 불편하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협력자가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17, 45

未 43년생 체면보다는 실리가 우선이니 실리를 취하라. 55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라. 67년생 타인의 시기가 괴롭히니 조심해서 하루를 보내라. 79년생 소심한 행동이 판단을 그르치니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03, 36

申 44년생 과거는 잃어버리고 미래를 향하라. 56년생 좋은 소식이 들리니 가족에게 전하라. 68년생 과거의 문서가 속을 태우니 자세하게 살펴보라. 80년생 이웃과 좋은 일을 함께 나누면 배가되어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 09,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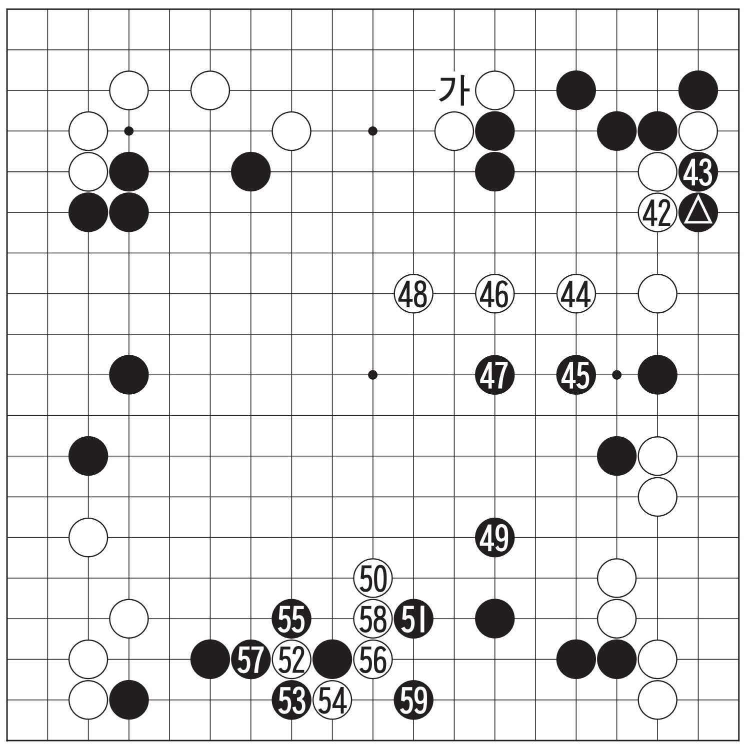
酉 45년생 외형을 줄이고 실속을 위주로 진행하라. 57년생 서로가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 된다. 69년생 내일을 위해서 힘을 아껴두어라. 81년생 가족은 최고의 협력자니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펴라. 행운의 숫자 : 01, 31

戌 46년생 멀리서 협조자가 나타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58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마음이 편하다. 70년생 마음은 갈팡질팡 짐작도 못할 수니 정신을 가다듬고 하루를 보내야. 82년생 귀를 막고 지내면 마음도 편하다. 행운의 숫자 : 19, 44

亥 47년생 실리는 적고 할 일은 많으니 선택을 잘하라. 59년생 끈기 있게 진행해도 심성이 곱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없다. 71년생 외형은 줄이고 실리는 늘려야 산다. 83년생 오늘은 즐거우니 무엇이 부러우랴. 행운의 숫자 : 0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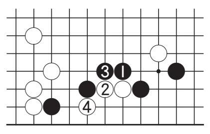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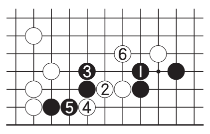


통렬한 맥점 4보(42~59)

白 이강민 5단 〈PCA생명〉 黑 박정규 5단 〈KT A〉



〈참고도 1〉



〈참고도 2〉

흑 ▲는 삶의 급소. 그러나 백이 42를 교환하고 44로 성큼성큼 뛰어 나가자 더이상의 공격은 쉽지 않다.

흑 49는 좋은 자리이긴 하나 백이 손을 뺀 것을 응징하는 의미에서라도 '가'로 끊어 백 한점을 잡고 싶다. 그렇다면 백도 '가'에 지킬 법 한데 이5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50으로 삭감에 나선다.

백 52가 통렬한 맥점이다. 박 5단은 고심끝에 53으로 젖혀 물러섰는데 이것이 정수다. 만약 욕심을 부려 '참고도1'의 흑 1로 위에서 젖히면 4까지 곤란하다. 또 '참고도2'의 흑 1로 느는 것은 백 6까지 망하게 된다.

백 54로 맞끊은 수가 연관된 맥점으로 58까지 적진을 돌파해서는 일단 52의 맥점이 성공을 거둔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박영훈·원성진 국수전 4강

박영훈 9단이 최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50기 국수전 8강전에서 윤현석 8단에게 275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했다.

이어 열린 대국에서 원성진 7단도 이상훈 9단을 168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4강에 합류했다.

박 9단과 원 7단은 4강에서 도전자 결정전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이미 4강에 오른 이희성 6단과 윤준상 4단도 결승 길목에서 맞대결한다.

이 대회는 도전자와 타이틀 보유자간 도전 5번기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며, 전기대회 우승자는 이창호 9단이다. 우승상금은 4천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40>

Can I take ~ off?

제가 (휴가로)쉬어도 되겠습니까?

A:Jeff, do you think I **can take tomorrow off**?
B:Do you have to?
A:I know tomorrow will be very busy. But my mother was hospitalized yesterday and I've got to see her.
B:In that case, you should go.

A:이봐 Jeff, 내가 내일 쉬어도 될 것 같은가?
B:그래야 됩니까?
A:내일 바쁠 것이라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문병을 해야 돼.
B:그런 경우라면, 그래야겠지.

take~ off :(휴가로서) 일을 쉬다.
hospitalize : 병원 치료를 하다.
- be in the hospital : 입원 중이다
- live in the hospital : 퇴원하다.
In that case ; 그러한 경우에는
(주의) in case ~ : ~할지도 모르니까, 만약 ~할 경우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40>

10年ぐらい前じゃない?

10년 정도 전 아닐까?

A:ねえ、ねえ、日本語でさ、'超'っていう言葉(ことば)があるでしょう?
B:うん、あるけど、それがどうしたの?
A:うん、'超(ちょう)すごい'とか'超(ちょう)むかつく'とか。あれっていつ頃から使(つか)われているの?
B:そうだね。**10年ぐらい前じゃない?**1990年ぐらいの現代語辭典(げんだいごじてん)に載(の)っていたから。

A:이봐, 이봐, 일본어에서 말야, '超'라고 하는 말이 있지?
B:응, 있는데, 그게 어쨌는데?
A:응, '超すごい'라든가 '超むかつく'라든가.. 그런거 언제쯤터 사용되고 있는거야?
B:글세, **10년 정도 전 아닐까?** 1990년 정도의 현대어 사전에 실려 있었으니까.

'超'ちょう : 초, 뛰어난모양
言葉(ことば) :말
すごい : 대단하다
むかつく : 화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58>

[illegible]

등기우편으로 해 주세요

A:[illegible]
[illegible]
B:[illegible]
[illegible]
A:[illegible]
[illegible]
B:[illegible]
[illegible]

A:이 편지는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B:광주요.
A:등기우편으로요, 아니면 보통우편으로요?
B:등기우편으로 해 주세요.

[illegible]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58>

東 夷(동 이)

동녘 동, 오랑캐 이

동(東)은 가운데에 봉을 넣고 양쪽을 묶은 주머니의 모습으로, 태양이 지평선을 통과하여 떠오르는 방향을 의미한다. 이(夷)는 키가 큰 사람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사람을 가리킨다.

동이(東夷)는 중국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는 뜻이다. 혹은 '동쪽의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동방의 종족을 이(夷)라고 불렀는데, 갑골문자(甲骨文字)에 '인이(人夷)'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 되었다. 고대 중국인들은 이(夷)를 근본(根本)이며, 어질어서 생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였다. 또 이(夷)는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온순하여 도리(道理)로 다스리기 쉽다고 하였고, '예의(禮義)의 나라' 또는 '불사국(不死國)'으로 호칭하였다. 이때부터 조선(朝鮮)을 예의의 나라, 불로초가 있는 나라라고 불렀던 것이다.

동방의 종족인 이(夷)는 9종류가 있어 구이(九夷)라고 하였다. 공자는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바른 도가 펼쳐지지 않자 차라리 뗏목을 타고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동이족은 한족(漢族)과 맞서 싸우면서 황하 아래쪽 회수 일대와 산동반도에 정착해 살았고, 또 한 갈래는 발해만을 따라서 요동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한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